

농가소득 양극화 현상 심화

한국 농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농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농과 영세농은 꾸준히 증가해 농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농가소득의 척도가 되는 농축산물 판매액도 양극화해 10농가 가운데 7농가는 한해 농축산물 판매액이 1,000만원을 밑돌았으나 100농가 중 3농가는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협중앙회가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 '농가 구조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경지규모 5ha 이상의 대규모 농가 비중은 2000년 1.7%에서 2015년 3.6%로 2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경지 없는 농가를 포함해

10농가 중 7농가 연매출 1000만원 밑돌아 100농가 중 3농가는 한해 판매액 1억원 이상

0.5ha 미만의 농가 비중도 32.8%에서 45.7%로 12.9%포인트 증가했다.

경지규모별 농가 추이를 보면, 5ha 이상의 대농 수는 2000년 2만4000가구(1.7%)에서 2015년에는 3만9000가구(3.6%)로 늘어났고, 0.5ha 미만 영세농(경지 없는 농가 제외)도 44만1000가구(31.8%)에서 48만6000가구(44.7%)로 증가했다.

하지만 0.5~5ha 농가 수는 2000년 90만6000가구(65.4%)에서 2015년 55만2000가구(50.8%)로 크게 뒷걸음질했다.

농가 수 자체가 2000년 138만가구에 비해 109만가구로 20% 이상 감소한 탓

도 있지만, 농업계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3ha 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감소폭이 컸다.

1~2ha의 농가 수는 2000년 35만2000가구(25.4%)에서 2015년 18만5000가구(17.0%)로 감소했고, 2~3ha 규모의 농가 수는 같은 기간 11만4000가구(8.2%)에서 6만3000가구(5.8%)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농가 규모화 정책과 고령농의 경지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농산물을 팔아 얻는 소득의 양극화도 심화됐다.

한해에 1000만원 미만의 농축산물을 판매한 농가 비중은 2000년 69.2%에서 2015년 67.9%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여전히 10농가 가운데 7농가꼴로 1년 농사를 통해 1000만원어치의 농축산물도 팔지 못한 것이다.

반면 5000만~1억원 농가는 같은 기간 1.7%에서 5.1%로 증가했다. 특히 1억원 이상 판매고를 올리는 농가는 2000년 0.5%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2.7%로 늘어났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지 규모·농가소득 등 농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농업 경영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사랑의 온도' 함께 올려요 동전주우체국 행복나눔 봉사단은 지난 1일 행복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단들은 전주 금암동에 홀로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과 지역이동센터에 사랑의 연탄 1,000여 장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안재용 기자

JB금융, '비상 글로벌 해커톤 대회' 성료 기술개발부문 아이벡스랩·아이디어부분 위킵 '최우수상'

JB금융그룹이 지난 2개월 간 진행한 제2회 비상 글로벌 해커톤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일 여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JB금융그룹 김한 회장과 금융위원회 정순섭 비상임위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김중완 고문, 디캠프 김광현 센터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핀테크 업체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국내 68팀, 해외 103팀 등 총 171팀이 참여했다.

이 중 최종 13개 팀이 본선에 올라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디캠프에서 각 팀 간 핀테크 능력을 겨뤘으며, 실제 개발 및 테스트, 프레젠테이션의 과정을 통해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치열한 경쟁 속에 기술개발 부문 최우수상은 mFOS 기반의 소셜간편 대출을 주제로 핀테크 기술을 선보인 아이벡스랩에게 돌아갔다.

기술개발 부문 우수상 3개팀은 스마트 바이오인증을 주제로 참가한 위닝아이(대표 정우영), 개인맞춤형 대출



JB금융그룹 '제2회 비상 글로벌 해커톤 대회' 시상식에 김한 회장과 금융위원회 정순섭 비상임위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김중완 고문, 디캠프 김광현 센터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비교견적 기술을 선보인 핀마트(대표 이승배), 인스턴트 메신저 기반 송금 서비스를 선보인 페이키 팀(이스라엘)이 선정됐다.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은 동산담보 중심의 P2P 금융거래를 선보인 위킵(대표 장보영)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재용 기자

최우수상을 수상한 아이벡스랩의 이현석 대표는 "핀테크 업체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기술을 선보일 기회가 부족한데, 이번 대회는 기술력도 인정받고 전 세계 핀테크 업체 간 벤치마킹과 소통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JB금융그룹은 참가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금융상품을 시장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JB금융그룹은 지난해 1회 대회의 우승팀인 피플펀드와 연계한 P2P 대출을 선보여 중소 핀테크 업체들에게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JB금융그룹 김한 회장은 "핀테크를 지속가능 성장의 큰 원동력이라 믿고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오픈뱅크 시스템을 구축해 많은 핀테크 업체들과 협업하고 실제 고객들에게도 새롭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안재용 기자

캠코, 도내 압류재산 109건 공매 진행

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가 진행하는 주요 공매물건에는 군산시 나운동 소재 감정가격 2억 1,500만원의 근린생활시설과 군산시 나운동 소재 감정가격 4억4,500만원의

대지, 익산시 영등동 소재 감정가격 6,100만원의 아파트 등이 있다.

공매 참여 시 임대차 현황 등 권리 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할 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는 5일 10시부터 7일 오후 5시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40억원 규모, 총 109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공매는 전북도민에게 유익한 공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

JB우리캐피탈,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 후원

JB우리캐피탈이 '2016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에 후원사로 참여한다. JB우리캐피탈은 지난해 11월 양준혁 야구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 지역의 다문화 가정 및 저소득층 야구 꿈나무들을 지속해서 후원하고 있다. 양준혁 야구재단이 주관하는 '희망

더하기 자선야구대회'는 매년 12월 개최되며, 전현직 올스타 선수 및 유명 방송인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한다.

자선야구대회 수익금 전액은 사회취약계층 청소년들로 이뤄진 멘토리 야구단을 위해 사용된다. /안재용 기자

조달청, 69건, 2591억원 상당 공사입찰 집행

조달청이 이번주에 법무부 수요 '전주지방검찰청 신축공사' 등 총 69건, 2,591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352억원 상당의 법무부 수요 '전주지방검찰청 신축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로 집행

되며,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2,237억원)와 수의계약(2억원)이다. 또한 집행건수의 약 87%(60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31%인 814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재용 기자

전북 농특산물 일본 신시장 개척

도교내 특별판매전 개최

전북도와 전북농협, NH무역은 2일부터 4일과 8일부터 13일 두차례에 걸쳐 일본 도쿄내 슈퍼체인인 도리선 60개 매장과 espot 60개 매장에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가는 농특산물 특별판매전'을 실시한다.

이번 일본특별판매전은 남원의 파프리카와 정읍 애호박과 새송이버섯, 임실 취청오이 등 총 8개 품목이 총 80여개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전에서는 시식판촉과 가격할인 등으로 일본 내 한인 뿐 아니라 일본인 소비자들에게 국내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수출을 위하여 일본바이어들과 상담을 실시하고 일본소비자의 반응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일본, 대만 등지에 배, 파프리카 등을 지속적으로 수출해 전년 동기 대비 150만 달러 증가한 2,2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매출 수도권 등에 통합판촉행사를 실시하여 전라북도 농특산물의 판로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전북농협 김태호 본부장은 "전북도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뤄지는 금번 특별판매전을 계기로 전북도의 신선하고 안전한 농특산물이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판매품목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판매농협 구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